

## 도덕판단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영역구분모형의 가능성과 한계

송 명 자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Turiel등이 제시한 영역구분 모형을 개관하고 도덕 발달이론으로서의 이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문화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영역구분모형의 개관에서는 이 모형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도덕적, 인습적, 개인적 영역의 개념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서 준거판단과 타당화 범주에 의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영역구분모형의 타 문화권에서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험적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문화권 간 차이와 그 관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관과 분석내용을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인 영역구분모형의 문화적 보편성, 도덕적 개념의 이질성, 영역구분 시기와 기제, 경험적 검증요인의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문제의 제기

#### 문화적 보편성 대 특수성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특정 시대·사회·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덕목·관습·규범들을 반영하는 것인가 또는 특정 집단의 가치나 규범을 초월하는 인간 고유의 보편적 도덕률을 지향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도덕발달영역의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도덕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대 문화적 특수성의 논쟁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Kohlberg (1968, 1969)의 도덕판단의 인지발달이론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of moral judgement)을 주축으로 하는 대부분의 도덕성 발달 분야 연구들은 문화적 보편성의 전제를 큰 비판없이 받아들여왔다. 이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아동의 도덕 발달은 동일한 도덕원리를 목표로 하고 동일한 단계

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Kohlberg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각 문화권간 도덕발달양상의 차이는 그 문화권 특유의 풍토가 보편적 도덕률에 도달하는 속도를 얼마나 촉진 또는 저해하는가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ohlberg 이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문화권간 비교연구가 도덕판단 발달수준의 비교연구인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이론의 문화적 보편성의 전제가 얼마나 비판없이 받아들여져 왔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Kohlberg이론의 준거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아동의 도덕발달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도덕발달수준이 낮으며, 우리나라 내에서도 시골아동이 도시아동에 비해 도덕발달이 뒤떨어진다는 보고(Park & Johnson, 1984)는 Kohlberg이론이 전제로 하는 문화적 보편성이 어떻게 문화권간 비교연구에서 반영되

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의 도덕성발달을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론적 틀로서 인정되어 왔던 Kohlberg의 도덕판단발달이론에 대해 근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그의 이론이 지닌 방법론적 부적합성, 도덕발달단계의 계열성 여부에 대한 회의, 단계이행의 비가역성을 위배하는 퇴행현상, 도덕적 판단과 도덕행위의 불일치 등 여러 측면에 가해지고 있으나 (Gibbs, 1977; Sullivan, 1977), 그의 이론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후인습적 수준의 보편적 도덕원리가 미국 중상류층 소수 백인 엘리트들의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개인주의와 형식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화권이나 계층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Shweder, 1982; Shweder 등, 1987; Simpson, 1974; White 등, 1978)은 그의 이론이 갖는 문화적 보편성의 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볼 수 있다.

Kohlberg이론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회의는 주로 특정 문화권이 갖는 인습(conventions)의 중요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잘 알려져있다고 하면 Kohlberg 이론에서 도덕발달의 최종단계인 후인습적수준의 보편적 도덕원리는 인습적 판단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문화되어 인습적판단을 대치하게 된다.<sup>1)</sup> 다시 말해서 그의 이론에서 도덕발달은 특정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범, 관습, 법률 등에 대한 동조적인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에 공통적인 권리, 가치, 존엄성, 정의 등을 고려하는 보편적 기준에 따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탈인습과정으로서의 도덕발달은 필연적으로 특정 문화권이 지닌 인습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어른에게는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한다"는 우리 문화권 특유의 인습을 대치하는 보편적 도덕률이 무엇이며 이러한 인습을 파기하는 합리적 사고를 길러가는 것이 과연 우리 문화권에 적합한 도덕발달의 방향인가를 생각해볼 때 Kohlberg의 도덕판단 대치모형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가 명료히 들어나게 된다.

Kohlberg의 도덕판단 인지발달이론이 문화적 보편성을 전제로하는 것과는 반대로 문화적 전수이론(cultural transmission theory)은 문화적 특수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문화적 전수이론에서 도덕발달은 이미 형성되고 조직화된 집단적 표상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학습, 전수 또는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hweder, 1982). Whiting, J. W. (1967)과 Whiting, B. B. (1983) 같은 문화인류학자들은 각 문화권 특유의 도덕적 가치는 집단내의 개개인이 집단의 가치로부터 일탈되는 것에 대해 공포, 죄의식, 책임감 등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동기적 체계에 의해 유지되며,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각 문화권 고유의 가치체계는 곧 그 문화권 특유의 도덕발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볼 때 아동의 도덕발달의 과정과 양상 또한 그 아동이 속하고 있는 문화적 체계내에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인도, 유대, 아랍 등 여러 문화권간 비교연구에서 도덕적가치 판단의 공통점보다 훨씬 큰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Gabennesh, 1990ab; Nisan, 1984, 1987; Shweder, 1982; Shweder 등, 1987)은 문화적 전수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권의 도덕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적 전수이론 또한 몇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첫째, Kant의 불변적 도덕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모든 시대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인간 고유의 보편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전수이론은 이러한 도덕적 실재론(moral realism)의 중요성을 경시하며 둘째, 도덕발달의 "궁극적" 목표를 집단의 가치의 내면화에 두는 것은 집단중심주의(ethnocentrism)에 빠져들게 할 위험이 있으며 셋째, 도덕성은 도덕행위만이 아닌 개인의 가치, 태도, 관념, 판단 등을 내포하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전수이론은 이러한 개인의 내재적 사고과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이러한 점에서 Kohlberg의 도덕판단발달이론은 흔히 분화이론(differentiation theory) 또는 대치모형(displacement model)으로 불리운다.

## 연구의 범위와 문제

Kohlberg의 도덕판단발달이론과 문화적 전수이론이 갖는 양극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두 이론이 주장하는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시켜 나가야하는가가 도덕발달이론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극적 입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Turiel등(Nucci, 1981; Smetana, 1981a; Turiel, 1979, 1983, 1989)이 제시하고 있는 영역구분모형(domain distinction model)을 도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 모형이 가정하는 영역구분의 내용과 각 영역의 도덕적 개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 이론의 틀 내에서 살펴본 뒤 둘째, 이 모형의 타당성의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모형을 입증해 주는 연구결과들과 그 준거판단을 검토하며 셋째, 이 모형의 타당성의 입증에 어려움을 주는 현상들과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서구와는 다른 문화권에서의 비교연구에서 드러난 이 모형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한계 및 그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위의 범위 내에서 영역구분모형을 개관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구분모형은 문화적 특수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동시에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는가? 특히 영역구분 모형은 서구와 구별되는 우리나라 아동 특유의 도덕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도 적합한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는가?

둘째, 영역구분 모형에서 설정한 도덕적 개념의 본질은 타당한가? 다시 말해서 도덕적 개념은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인 판단만에 한정되는가 또는 각 문화권 특유의 인습을 포함하는가?

셋째, 영역구분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그 기제는 무엇인가? 어느 연령에서부터 영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덕적 개념이 획득되며 또한 어떠한 기제를 통해 획득되는가? 그것은 인간에 내재하는 특성인가 또는 학습되는 능력인가?

넷째, 영역구분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개인내적 또는 상황적 요인들이 영

역구분모형의 경험적 타당성 여부의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영역구분모형의 개관

Turiel등은 Kohlberg가 단계적으로 분화되어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한 전인습, 인습 및 후인습수준의 도덕성을 각기 독립적인 개인적(personal), 인습적(conventional) 및 도덕적(moral) 영역<sup>2)</sup>으로 구분하고 있다(Nucci, 1981, 1985; Smetana, 1985; Turiel, 1977, 1978, 1983; Turiel, Smetana & Killen, 1991; Weston & Turiel, 1980). Turiel에 의하면 이들 영역은 상이한 종류의 사태나 행동에 대한 상이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sup>3)</sup> 도덕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상이한 유형의 사회적 지식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Turiel등의 영역구분모형의 특징을 이론적 틀과 경험적 근거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 영역구분모형의 이론적 틀

영역구분모형에서 도덕, 인습 및 개인적 영역은 각기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도덕적 영역(moral domain)은 생명의 가치, 정의, 인간고유의 권리와 존엄성, 신뢰, 책임감, 배분의 공정성 등과 같이 시대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도덕적 인식과 판단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영역의 도덕 판단내용은 보다 합리적이고 절대적이며 지속적이고 모든 시대, 사회,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문화적 보편성을 지닌다.

2) 도덕발달의 포괄적 영역으로서의 도덕개념과 영역구분모형에서 하위 영역으로서 도덕적 개념과는 그 용어사용의 혼돈이 일어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구분모형의 하위영역을 지칭할 때는 항상 도덕적 영역 또는 도덕적 개념으로 기술하여 일반적 진술과 구별한다.

3) Shweder(1987)는 영역구분모형의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여 이 모형을 사회적 상호작용이론(social interactional theory)이라 지칭하며, Edwards(1987)는 자기구성이론(self-construction theory)이라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인습적 영역(social-conventional domain)은 음식, 의복, 인사, 관혼상제의 예법, 성역할 등과 같이 특정 사회적 체계에 함께 참여하는 집단 내의 개인의 행동을 통합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화시켜주기 위해 그 성원들의 일종의 상호합의에 의해 규정된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일단 인습적 규범으로 규정되면 그 성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및 행동적 제약을 가하게 되므로 도덕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도덕 판단의 주요 영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영역이 비해 사회인습적 영역은 보다 임의적이고 상대적이며 가변적이다. 또한 시대, 사회, 문화 등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다.

영역구분모형에서 개인적 영역(personal domain)은 도덕적 권위나 인습적 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특유의 문제로 지각되는 일련의 행동이나 사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해야 할 일, 친구에게 줄 선물, 휴가에 입을 옷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일 이에 속한다. 개인적 영역의 구분은 자아를 확립하고 자율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나 때로 사회인습적 규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Nucci, 1981; Smetana, 1983).

Turiel등에 의하면 도덕적 사태를 상이한 영역으로 구분하는 능력은 매우 일찍부터 나타나며, 각기 상호 독립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Smetana, 1981a, ; Turiel, 1983). 이들은 어린 아동들도 타인의 권리와 행복에 대한 배려, 정의, 공정성 등 도덕적 사태에 내재하는 인간 고유의 본질적인 보편적 도덕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보편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인식이 인습적 판단 이후에 비로소 분화되어 나타난다는 Kohlberg의 주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없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나쁘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행위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과추론능력을 근거로 한 것이다(Nucci & Turiel 1978; Nucci & Nucci, 1982).

도덕적 개념에 비해 사회인습적 개념은 보다 명백하게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학습되며 따라서 도덕적 개념과 별개의 발달적 체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Turiel, 1978, 1983). Turiel에 의하면 사회인습적 개념은 특정 인습적 구조를 구성하는 확인(affirmation)과 이를 배척하고 새로운 인습구조를 형성하고자하는 부정(negation)간의 동요를 거쳐 발달한다. 이러한 발달과정은 6-7세경에서 시작하여 19-25세경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데, 사회적 획일성 체계로서의 인습의 구성, 획일성으로서의 인습의 부정, 규칙체계로서의 인습의 확인, 규칙체계로서의 인습의 부정, 사회적 체계로서의 인습의 인식, 사회적 체계로서의 인습의 부정을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기능으로서의 인습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도덕성 발달을 도덕적 및 인습적 영역으로 구분한 영역구분모형은 Kohlberg이론이나 문화적 전수이론이 지닌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극적 한계를 극복하고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도덕적 영역은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에 대한 개념들을 포함하므로, 이 영역에서의 도덕성 발달은 그 보편성으로 인해 문화권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인습적 영역은 각 문화권이 지니는 특유의 가치와 규범들을 독자적인 도덕개념의 일부로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문화권 간의 비교를 배제하며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영역구분모형은 또한 아동의 도덕성발달에 관여하는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통합하는 장점을 지닌다. 이 모형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도덕적 개념은 도덕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사회적 상호작용경험이 융합되어 구성된 결과이다. 그 비중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보다 크나 인습적 개념의 발달 또한 인습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과정임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영역구분모형은 그 이론적 틀에 있어서, 종래의 도덕발달 이론들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이론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 영역구분모형의 경험적 근거

영역구분모형의 경험적 검증은 주로 준거판단 (criterion judgment)과 판단의 이유에 대한 타당화 (justification)의 두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Smetana, 1983; Turiel, 1983).

준거판단은 비허용성 (nonpermissibility), 규칙독립성 (rule independence), 일반성 (generalization)의 세 기준을 포함한다. 비허용성은 일련의 도덕관련 사태에서의 일탈행동이 본질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심각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영역구분모형에서는 개인적 영역보다는 사회인습적 영역, 사회인습적 영역보다는 도덕적 영역의 일탈행동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아동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도덕적)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인습적) 보다 더욱 나쁘다고 반응하는 것 (Smetana, 1984; Song, 1987)은 그 예가 된다.

규칙독립성은 특정 사태의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이 그러한 행동을 규제하는 제도, 규칙, 관습 등의 지배를 받는가의 준거를 뜻한다.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사태에서의 일탈행동은 이를 제재하는 규칙이 없어도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사회인습적 영역의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규칙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Smetana (1981a)의 연구에서는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이 규칙이 없어도 나쁘다고 대답한 아동은 평균 74%-100%였으나, 장난감을 정해진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규칙이 없어도 나쁘다고 대답한 아동은 0-34%로 나타났다.

일반성은 특정 사태의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이 시대나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가의 가변성 여부를 뜻한다. 도덕적 영역의 판단은 맥락독립적인 데 반해 사회인습적 영역의 판단은 보다 맥락의 존적이다. 학생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모든 사회에서 다 나쁘다고 반응한 고등학교 학생이 10%에 불과한 것 (Song 등, 1987)은 이를 입증하는 예이다.

준거판단의 이유에 대한 타당화 또한 명백한 영역간의 차이를 보인다. 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사태에서의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의 이유는 주로 타인의 입

장·권리·행복의 침해·인간 본연의 양심·의무 또는 책임감·정의·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공정성 등과 같은 범주적 도덕률에 의해 설명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인습적 사태의 판단 이유는 사회적 제재, 대인관계에서의 불일치, 사회적 동조, 관습이나 전통의 파괴·규칙이나 기준의 파괴·사회적 질서의 교란·지위나 역할기대의 불일치 등이 주된 이유가 된다. 개인적 사태의 판단에 대한 타당화는 개인의 제반 심리적 특성, 개인적 선택, 건강상의 이유 및 실용성 등이 주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Davidson 등, 1983; Smetana, 1983; Tisak & Turiel, 1984; Turiel, 1983; Weston & Turiel, 1980).

Turiel 등은 지난 10여년간 이루어진 2세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48개의 연구에 의해 자신들이 제시한 영역구분 모형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약 77%의 연구들이 비허용성의 준거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87%의 연구가 규칙독립성의 준거를, 78%의 연구가 일반성의 준거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단이유에 대한 타당화 준거 또한 약 77%의 연구들에서 아동이 제시한 타당화범주와 각 영역의 개념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elwig, 1990). 이러한 분석 결과를 수용한다면 영역구분모형은 경험적 검증을 통해 그 이론적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영역구분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전형적인 도덕적 및 인습적 일탈 사태들을 제시하고 이들 사태에서의 준거판단과 타당화를 분석하여 영역구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Nucci, 1981; Nucci & Nucci, 1982; Smetana, 1984, 1985; Smetana, 1984; Turiel, 1983). 이러한 타당성 검증은 미국 내 뿐 아니라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이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연구결과들 (Hollos, 1986; Nucci, 1983; Song, 1987)을 얻었으나,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면적으로 영역구분의 모호성도 보고되었다 (Edwards, 1987; Miller, 1986; Nisan, 1987; Shweder 등,

1987; 송명자등, 1991ab).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나 교사등 성인의 권위 추론(Laupa, 1991; Smetana, 1988, 1989; Tisak, 1986; Tisak & Turiel, 1988), 성역할 추론(Smetana, 1986a), 갈등상황과 같은 대인관계 추론(Smetana, 1988b; Smetana등, 1991)등 보다 복잡한 사회인지와 관련되는 여러 상황에서 영역구분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영역구분은 초기 연구에서 만큼 명료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hantz, 1982; Davidson등, 1983; Miller & Bersoff, 1988; Smetana, 1985b; Tisak & Turiel, 1988; Turiel, 1989). 이러한 일부 문화권간 비교연구와 복합적 상황에서의 연구에서 드러난 영역구분의 모호성은 영역구분모형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문제점과 한계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 영역구분 모형의 문제점과 한계

영역구분모형이 갖추고 있는 이론적 논리성과 경험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현상과 자료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 모형이 이러한 위협요인들을 극복해내느냐의 여부는 도덕 발달이론으로서의 이 모형의 지속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영역혼재와 이차적 현상

동일한 사태가 여러 영역의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영역구분이 모호하고 어려운 영역혼재(domain mixture)현상은 영역구분모형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낙태, 성역할, 사회적 지위, 혼전순결 등은 이러한 영역혼합이 나타나는 다면적 사태(multifaceted event) 또는 혼재사태(mixed event)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Smetana, 1983, 1986). 낙태(abortion)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인간의 생명이 수정에서 시작되므로 따라서 이 사태는 명백하게 도덕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

는 사회도 있으므로 낙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는 낙태 여부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개인적 영역의 성격도 갖는다.

낙태와 같은 다면적 사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사태가 지닌 세 영역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통합(coordination)하려는 경향과 자신이 주로 판단하는 특정 개념화에 다른 영역의 개념들을 예속(subordination)시키려는 두 경향이 나타난다(Smetana, 1983; Turiel, 1983; Turiel & Smetana, 1984). 성역할 편견과 관련된 사태에서 30%가 이 사태를 도덕적 영역에, 20%가 인습적 영역에 예속시켰으며, 나머지 50%는 두 영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etana, 1983).

영역구분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차적 현상(secondary order phenomena)을 들 수 있다. 이 현상은 최초에는 인습적 성격을 띤 사태가 타인에 대한 도덕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줄서기, 차혜 기다리기 등은 명백하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인습적 문제이나 이 사태에 대한 일탈행동의 결과는 타인의 권리의 침해라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Nucci등(Nucci, 1982ab; Nucci & Turiel, 1978)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인습적 사태의 이차적 현상화는 인습에 대한 동조를 강조하는 교사, 부모 또는 다른 사회화 주체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간에 영역구분모형에서 다면적 사태와 이차적 현상은 영역혼재와 함께 이 모형의 타당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sup>4)</sup> 의복, 머리모양, 명칭 등 모든 인습적 또는 개인적 사태들은 이를 위해 하는 경우 대체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결국은 도덕 사태로 개념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도덕관련사태는 어느 면에서 다면적 사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만

4) 수평적 격차(horizontal decalage)가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이론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정도가 "Piaget이론에서의 Waterio 전쟁(Beilin, 1968)"으로 비유되듯이, 이들 현상이 영역구분모형을 위협하는 정도 또는 같은 비유가 적용될 만 하다.

일 모든 도덕사태들이 여러 영역특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면적 사태로 인식된다면 영역구분모형은 그 설정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권에서 도덕적 영역으로 개념화한 사태를 다른 문화권에서 인습적 영역으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인습적 영역의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영역구분의 개인차나 문화권간 차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들은 이 모형의 타당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문화권 간 차이

Nisan(1987)은 유대인 아동과 전통적 문화틀 지속하고 있는 모슬렘 아랍아동을 대상으로 일련의 도덕적 및 인습적 일탈사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허용성, 규칙독립성 및 보편성에 따른 준거판단과 그 타당성 범주를 측정한 결과 두 집단간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유대인 아동들은 도덕적 또는 개인적 준거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 반해 아랍 아동들은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규준을 준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거의 모든 사태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도덕적 사태를 사회적 규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였다. Nisan은 이와 같이 문화적 요인이 인습적 사태 뿐 아니라 도덕적 사태의 판단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인 도덕적 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sup>5)</sup>

Shweder 등(1987)은 미국 아동 및 성인과 카스트 상의 신분이 다른 두 집단의 인도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39종류의 두 문화권에서 대표적인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판단을 검토한 결과 9개의 행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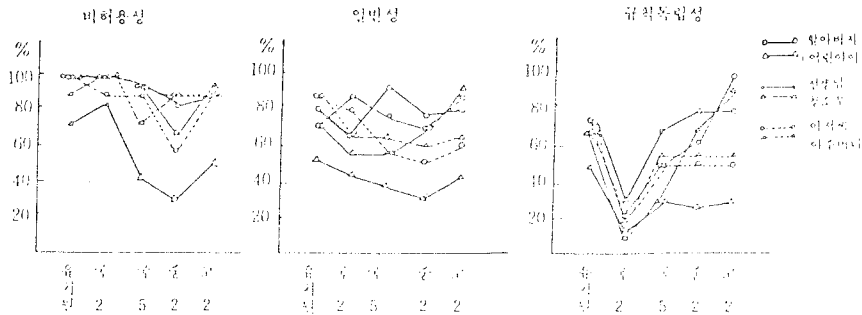
대해서는 모든 문화권과 계층간에 공통성을 찾았으나 나머지 30개 행위에 대해서는 현격한 개념차이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먹는 일', '과부가 색깔있는 옷을 입는 일', '부친의 장례식 후 머리를 깎는 일' 등 미국인들에게는 인습적인 사태가 인도인들에게는 어떤 도덕률보다 더욱 강력한 도덕적 사태로 개념화되고 있었다. 240명의 인도인 대상 중 위의 사태들을 인습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불과 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 의복 등을 대표적인 인습적 영역으로 내세우는 Turiel 등의 영역구분모형과 전적으로 상치하는 것이다.

문화권에 따른 영역구분 양상의 차이는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4개의 도덕적 사태와 4개의 인습적 사태를 제시하여 유치원, 국.중.고등학교학생에게 준거판단과 그 이유를 물은 연구(Song 등, 1987)에서 한국 아동은 미국 아동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아동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사회인습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데에 반하여 우리나라 아동은 인사를 '도덕적'인 사태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아동들은 '인사'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그러한 규범이 정해져 있으므로 따라야 하는 행위양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에 의한 제재 여부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나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리양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준거판단에 대한 타당화 범주에서도 미국아동은 주로 인습적 일탈행동이 나쁜 이유를 이러한 행동에 뒤따르는 사회적 규제나 처벌 때문이라 설명하는 데에 반하여 우리나라 아동은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적합한 역할과 상호간의 예의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화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의 예의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 전통 및 민족적 자부심과 결합되어 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도덕적 사고내용을 구성하는 특성임이 밝혀졌다.

인습적 개념을 도덕화하는 우리 문화권 특유의 사회적 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연령, 사회적 지위, 성

5) 이러한 Nisan(1987)의 비판에 대해 Turiel, Nucci와 Smetana(1987)는 이 연구의 방법적 부계합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Nisan(1988)의 응답은 이 분야의 흥미로운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1>에서 규칙독립성 준거판단의 경우 국민학교 2학년 아동이 모든 대상에 대해 금지하는 규칙이 없을 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나 '차리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고 반응한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매우 주목 할 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학교 초기 도덕교육이 지나치게 덕목 또는 규율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1. 준거판단별 반응 백분률



등에 사회적 요인을 대비시켜 아동의 사태판단을 검토한 연구(송명자와 김상윤, 1987)에서도 같은 문화권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나쁘다고 반응하는 정도가 대상의 연령, 지위,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했을 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만이 세 준거판단 모두에서 강한 도덕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사회적 지위나 성은 인습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맥락에서 연령과 지위의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Laupa와 Turiel(198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구의 연구에서 각각 도덕적, 인습적 및 개인적 사태로 구분된 도덕관련 사태 9개를 제시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판단을 진단한 연구(송명자 등, 1991ab)에서 세 준거판단 모두에서 이들 사태판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판단 이유에 대한 타당화는 9개중 7개 사태에서 공통적으로 도덕적 범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시된 사태가 모두 세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다면적 사태임을 반영하며, 따라서 Turiel 등의 영역구분모형의 전제와는 위배되는 것이다.

영역구분모형을 다른 문화권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문화권 간 차이는 도덕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영역구분모형내에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판여요인 분석

동일한 도덕관련사태가 서로 상이한 영역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는 것은 영역구분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에 이들 판여요인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덕적 일탈행동이 제시되는 상황요인과 판단자의 정보적 가정이 주요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황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제시되는 상황의 친숙도(familiarity), 유용성(utility) 및 심각성(seriousness)의 정도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도덕적 일탈행동이 제시되는 상황이 친숙하면 보다 어린 아동들도 정확하게 영역을 구분하나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영역구분은 모호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dson 등, 1983). 또한 아동들은 보다 유용하고 바람직한 상황에서 제시되는 규칙은 합법적이며 명료한 사회적 인습으로 지각하는 데에 반해 유용성이 낮은 사례는 개인적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높다(Miller & Bersoff, 1988). Tisak과 Turiel(1988)은 동일한 일탈행동도 그 결과가 보다 심각할 때 낮은 연령 수준의 아동은 이를 도덕적 사태로 개념화하



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의 심각도가 높을수록 비허용성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Gabennesh(1990a)는 도덕사태 영역개념화에 미치는 상황요인들을 상황의 명료성(transparency) 대 불명료성(opacity)으로 통합하고 있다. 상황명료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제시되는 상황의 인물특성, 응집성, 친숙성, 복잡성, 유용성, 맥락일관성, 안정성, 지지성, 일탈성 및 문화적 맥락 등이다. Gabennesh는 명백하게 인습적인 사태도 상황명료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사태로 개념화됨을 밝히고, 상황 명료성이 도덕사태판단에 미치는 높은 영향력을 감안할 때 도덕성은 실제로 인간이 만든 강도 높은 인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도덕판단의 차이가 상황에 대한 판단자의 정보적 가정(informational assumption)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흥미로운 것이다. Wainryb(1991)은 도덕사태 판단을 관련행위의 가치에 대한 처방적 개념을 포함하는 가치판단(evaluative judgement)과 현상의 원인, 특성, 의미의 해석 등을 기술하는 정보적 판단(informational judgement)으로 나누고, 정보적 판단의 차이가 개인, 집단, 문화권 간 도덕판단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판단자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해 가정을 설정하도록 단서를 제공했을 때 모든 연령에서 이러한 정보적 가정이 사태의 영역개념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정보적 단서가 있는 상황에서 판단자들은 학교에서의 처벌허용 또는 규제 문제를 보다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역개념화가 개개인의 선입관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두 유형의 요인을 식별해내고 있으나 영역개념화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영역구분모형을 개관함으로써 내가 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한정된 자료 이기는 하나 이상에서 제시한 영역구분 모형의 이론적 틀, 경험적 근거, 문화권간 차이, 관여요인들을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문화적 보편성

본 연구에서 제기한 첫번째 문제는 Turiel등의 영역구분모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문화권에 적용될 수 있는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는가 여부였다. 영역구분모형이 도덕적 및 인습적 영역의 독자적인 발달과정을 인정함으로써 각 문화권 특유의 전통적 관습과 규범을 독립적 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모형이 Kohlberg이론에 비해 각 문화권의 도덕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러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이 모형이 설정한 도덕적 및 인습적 영역의 판단내용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을 밝혀주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Nisan(1987), Shweder등(1987)의 이스라엘, 인도에서의 연구는 영역구분모형이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아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Song 등, 1987; 송명자 등, 1991a)에서도 Turiel등이 제시한 도덕적 및 인습적 개념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생은 리포트 제출기간이나 귀가시간 어기기 등 서구에서 인습적 영역으로 판단되는 사태를 인간적인 도리나 공정성, 교수나 부모에 대한

6) Gabennesh(1990a)의 주장에 대한 Shweder(1990), Helwig, Tisak & Turiel(1990)의 반론과 Gabennesh의 재응답(1990b)은 Nisan(1987)과의 논쟁 이후 이 분야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다.

배려등 명백하게 도덕적인 사태로 개념화하며, 머리 모양이나 아르바이트 선택 등 서구에서는 개인적인 사태를 학생의 신분이나 사회적 비난에 비추어 설명하는 인습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Turiel등의 영역구분모형에서 각 영역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기준 역시 서구의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임을 반영하며, 따라서 영역구분모형의 문화적 보편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몇편 안되는 문화권간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이 모형이 지닌 문화적 보편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미국내에서 영역구분모형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했듯이 앞으로 보다 많은 문화권간 비교연구들이 이루어져 이들의 메타분석을 거쳤을때 이 모형의 명확한 한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도덕적 개념의 이질성

본 연구에서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는 영역구분모형에서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인 것으로 설정한 도덕적 개념본질이 모든 문화권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명백하게 Turiel등의 영역구분 모형에서는 Kohlberg의 마찬가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만을 도덕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험적 검증들 통해 밝혀진 도덕적 개념에 대한 큰 폭의 문화권간 차이는 도덕적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Shweder(1990)는 도덕적 개념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문화권간 차이를 영역구분모형내에 흡수하는 한 방안으로서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보편적 도덕성(universal morality)과 문화권에 따라 상이한 맥락 의존적 도덕성(context-dependent morality)으로 구분되는 도덕적 개념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hweder는 도덕적 개념은 세 종류의 상이한 규범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첫째 규범(code 1)은 존엄성, 정의, 권리, 행복 등 종래의 보편적 도덕률로

규정되어온 도덕성으로서 절대적 도덕규범(mandatory moral code)을 이룬다. 영역구분 모형에서의 도덕적 개념은 이 규범만을 의미한다. 두번째 규범(code 2)은 의무·사회적 위계 대인간 상호의존 등을 포함하며 세번째 규범(code 3)은 종교적 질서·전통·죄·개인적 규범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Turiel 등이 인습적 또는 개인적 영역으로 규정했으나 많은 문화권에서 도덕적 영역으로 개념화된 내용들로서, Shweder는 이를 임의적 도덕규범(discretionary moral code)이라 부른다.

Shweder는 이 세 규범들은 성인 사회에서 이미 자연적인 도덕률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들 규범을 도덕적 영역에 포함시키므로써 도덕성 본질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문화권간 혼돈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Shweder의 주장은 도덕적 실재에는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된다는 Putnam(1987)의 실용주의적 도덕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도덕적 영역의 개념이 여러 이질적인 가치규범들로 구성된다는 Shweder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영역구분의 기본틀은 유지될 수 있으나 도덕적 영역의 개념과 준거판단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절대적 도덕규범은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나 범주 2와 범주 3의 임의적 규범은 문화권에 따라 도덕적 영역과 인습적 영역을 넘나들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성의 준거판단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은 영역구분모형이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여러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영역구분 시기 및 기제

여러 도덕관련사태들을 그 영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개념화하는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획득되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예를 들면, Semetana(1984)는 13개월에서 40개월 사이의 영,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속에 나타나는 도덕적 및 인습적 일탈행동 맥락에서의 반응을 관찰한 결과 두 영역에서 질적으로 상

이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영역구분이 생후 1년이 지난 직후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능력이 학습된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내재하는 특성임을 반영하는 것이다(Nucci & Nucci, 1982; Nucci & Turiel, 1978; Smetana, 1981a, 1984; Sematan 등, 1984). 그러나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후기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영역구분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로 그 정확성이 높아가는 능력으로 밝혀지고 있다(Smetana, 1981a; Song 등, 1987; Tisak & Turiel, 1988). 이러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도덕적 사태보다는 인습적 사태를 변별해내는 능력의 발달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인습적 일탈행동에 적합한 성인들의 반응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Smetana, 1981, 1984; Smetana 등, 1984).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에 대한 개념은 내재적이지만 인습적 개념은 부모·교사 등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과의 상호작용기제를 통해 발달한다는 앞의 주장(Nucci & Nucci, 1982; Nucci & Turiel, 1978)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역구분모형에서 도덕적 영역의 개념은 내재적이며 매우 이른 연령에서부터 식별된다. 따라서 이 능력이 영역구분을 가능케 하는 기제가 된다. 이에 반하여 인습적 개념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적합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구성되어지며, 따라서 부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역구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 경험적 검증 요인

사고, 판넬, 태도 등 인간의 내재적 특성의 진단이 방법론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특성을 설명하는 모형이나 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이러한 방법론적 요인들의 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려져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역구분모형의 경험적 검증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적 요인은 제시되는 상황의 친숙도, 유용성, 심각성, 명료성 등 몇가지 상황요인과 판단자의 정보적 가정이라는 개인내적 요인을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영역구분모형이 도덕발달이론으로서 제시된지 10여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이 이 모형의 기본적인 타당성 검증에 몰두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이 모형의 방법론적 요인에 대한 검토는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영역구분 모형의 준거판단의 적합성 검증, 타당화 설명의 범주별 구분 근거가 되는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토, 영역 개념화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상황관련 요인들의 보다 면밀한 분석, 대상 아동의 특정 경험과 개념화 내용과의 상관성 등이 모형의 경험적 검증과정에 관여되는 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토를 거쳤을 때 이 모형의 도덕발달이론으로서의 최종적인 적합성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송명자, 김상윤(1987). 아동의 도덕사태 판단에 있어서 사회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140-149.
- 송명자(1988).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한림 정수봉총장 회갑기념논문, 227-241.
- 송명자, 설기문, 김상윤(1991a). 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양상의 범주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학술발표 논문초록, 135-144.
- 송명자, 조용하, 설기문, 김상윤(1991b). 한국 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 189-206.
- Beilin, H. (1968). Learning and operational convergence in logical thought development. In K.E. Siegel & F. H. Hopper(Eds.), *Logical Thinking in Children: Research Based on Piaget's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60-382.

- Davidson, P., Turiel, E., & Black, A. (1983). The effect of stimulus familiarity on the use of criteria and justifications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 49-65.
- Edwards, C.P. (1987). Culture and the construction of moral values: A comparative ethnography of moral encounters in two cultural setting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bennesch, H. (1990a). The perception of social conventionality by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61*, 2047-2059.
- Gabennesch, H. (1990b). Recognizing conventionality: Reply to Shweder and Helwig et al. *Child Development, 61*, 2079-2084.
- Gibbs, J.C. (1977). Kohlberg's stages of moral judgment: A constructive critiqu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1, 48-61.
- Helwig, C.C., Tisak, M.S. & Turiel, E. (1990). Children's social reasoning in context: Reply to Gabennesch. *Child Development, 61*, 2068-2078.
- Hollos, M., Leis, P., & Turiel, E. (1986). Social reasoning in Nigeria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352-374.
- Kohlberg, L. (1968). Moral development. In D. Sh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Y.: Macmillan, 483-494.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and McNally & Co., 347-480.
- Laupa, M. (1991). Children's reasoning about three authority attributes: Adult status, knowledge, and social pos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21-329.
- Laupa, M., & Turiel, E.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405-412.
- Miller, J.G. (1986). Early cross-cultural commonalities in social expla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14-520.
- Miller, J.G., & Bersoff, D.M. (1988). When do American children and adults reason in social conventional term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366-375.
- Nisan, M. (1984). Content and structure in moral-development: An integrative view. In W.B. Kurtines & J. L. Gewirts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Basic issue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208-224.
- Nisan, M. (1987). Moral norms and social conventions: A cross-cultur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9-725.
- Nisan, M. (1988). A story of a pot, or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basic moral evaluations: A response to the critique by Turiel, Nucci, and Smetana (1988).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44-146.
- Nucci, L.P.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cept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 (1982a). *Evaluating teachers as social agents: Students' ratings of domain-*

- social agents: Students' ratings of domain-appropriate and domain-inappropriate teacher responses to transgress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 Nucci, L. (1982b).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societal domain and comprehension of social studies cont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 Nucci, L. P., & Nucci, M. S. (1982).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3*, 403-412.
- Nucci, L.,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Nucci, L., Turiel, E., & Encarnacion-Gawrych, G. E. (1983).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concepts: Analyses of morality and convention in the Virgin Islan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469-487.
- Park, J. Y., & Johnson, R. C. (1984). Moral development in rural and urban Korean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35-40.
- Putman, H. (1987). *The many faces of realism*. LaSalle, IL: Open Court.
- Shweder, R. A. (1982). Beyond self-constructed knowledge: The study of culture and mor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28*, 1, 41-69.
- Shweder, R. A. (1990). In defense of moral realism: Reply to Gabennesch. *Child Development, 61*, 2060-2067.
-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pson, E. L. (1974). Moral Development Research: A case study of scientific cultural bias. *Human Development, 17*, 81-106.
- Smetana, J. G. (1981a).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metans, J. G. (1981b). Reasoning in the personal and moral domains: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s decision-making regarding abor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 211-26.
- Smetana, J. G. (1983). Social-cognitive development: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3*, 131-147.
- Smetana, J. G. (1984). Toddlers' social interaction regarding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1767-1776.
- Smetana, J. G. (1985a). Family rules, conventions, and adolescent-parent conflic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April.
- Smetans, J. G. (1985b).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transgressions: The effects of varying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related attribu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8-29.
- Smetana, J. G. (1986a).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sex-role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7*,

- Child Development*, 57, 862-871.
- Smetana, J. G. (1988a).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321-335.
- Smetana, J. G. (1988b). Concepts of self and social convention: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family conflicts. In M. R. Gunnar & W. A. Collins (Eds.), *21st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pp. 79-122.). Hillsdale, NJ: Erlbaum.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metana, J. G., Killen, M., & Turiel, E. (1991). Children's reasoning about interpersonal and moral conflicts. *Child Development*, 62, 629-644.
- Smetana, J. G., Kelly, M., Twentymen, C. T. (1984). Abused,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277-287.
-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Sullivan, E. V. (1977). A study of Kohlberg's structural theory of moral development: A critique of liberal social science ideology. *Human Development*, 20, 352-376.
- Tisak, M. S.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166-176.
- Tisak, M. 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Tisak, M. 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s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352-357.
- Turiel, E. (1978). Social regulations and domains of social concepts.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1. Social Cogni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45-74.
- Turiel, E. (1979). Distinct conceptual and development domains: Social-convention and moralit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89). Domain-specific social judgments and domain ambiguities. *Merrill Palmer Quarterly*, 35, 1, 89-130.
- Turiel, E., Nucci, L. P., & Smetana, J. G. (1988). A Cross-cultural comparison about what? A critique of Nisan's (1987) study of morality and con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40-143.
- Turiel, E., & Smetana, J. G. (1984). Social knowledge and action: The coordination of domains. In W. M. Kurtines and J. L. Ge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Basic Issue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261-282.
- Turiel, E., Smetana, J. G., & Killen, M.

- (1991). Social contexts in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W.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Vol. 2, pp. 307-332). Hillsdale, NJ:Erlbaum.
- Wainryb, C. (1991).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The role of informational assumptions. *Child Development*, 62, 840-851.
- Weston, D., & Turiel, E. (1980). Act-rule relations: Children's concepts of social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17-424.
- White, C.B., Bushnell, N., & Regnemer, J.L. (1978). Moral development in Bahamian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8-65.
- Whiting, B.B. (1983). The Genesis of prosocial behavior. In D. Bridgeman, (ed.), *The nature of prosocial development: Interdisciplinary Theories and strategies*. New York: Academic Press.
- Whiting, J.W.M. (1967). Sorcery, Sin, and the superego: A corss-cultural study of some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In C. S.Ford, (ed.), *Cross-cultural approaches: Readings in comparative Research*. New Haven, Conn.: Human Relations Ares Files Press.

## Cultural Universality of Moral Development: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domain-distinction Model

Myung-Ja Song

Dong-A University

This article reviews the domain-distinction model of moral development proposed by Turiel et al. and examines its adequac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universality. The review of domain-distinction model deals with the conceptual contents of moral, conventional and personal domains which consist the theoretical frame of the model and introdu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lated studies with reference to the criterion judgement and justifications to prove the empirical basis of the model.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model to non-Western cultures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variations revealed from the cross-cultural studies including those in Korea and analyzes the relevant factors causing the difference. The issues of cultural universality of the domain-distinction model, the heterogeneity of the concept of morality in the model, the age and mechanism the domain distinction is acquired,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model are discussed to answer the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